

금감원 “빚내 빚 갚는 악순환 막아야”

#1. 전북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A씨는 회사 경영난으로 일 자리를 잃었다.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의류소매 사업장에서 일을 도왔지만 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기도 위축돼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던 중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용, 연체기록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기존 신용대출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온 B씨는 폐업 판정을 받아 휴직했다. 소득이 없어 병원비 충당하려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다, 기존에 받은 자녀 학자금대출까지 연체된 것이다. 기존대출을 정상적으로 연장하려면 20%이상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AB씨처럼 일시적 자금난으로 은행권 연체가 우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연체우려 절망 속에 빠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이같은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대출을 만기연장이나 장기분할상환대출, 서민금융상

품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A씨는 은행에서 대출 만기 2개월 전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상담을 받아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로 전환했다. 연장이 불가능했던 기존 대출이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인 상환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씨 역시 기존대출을 정상적으로 연장하려면 20%이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서 상환부담

취약계층 지원위해 '신용대출 119' 도입 연체우려 시 기존대출→만기연장 등 전환 “개인채무자, 연체발생 최소화 등 기대”

을 덜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가 선제적으로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원받은 액수는 총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연체우려자 총 38만명 중 91%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은 셈이다.

그 방식은 만기연장 비중이 89.7%로 가장 높고 장기분할상환대출이 6.4%, 서민금융상품 대환이 3.9% 순으로 집계됐다. 즉 31만명(5조2000억원)이 만기연장·대환을, 4

만명(6000억원)이 정상상환했다. 지원받은 이들과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 기준 연체우려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조2000억원)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지원 건수도 8만5706건으로 전년 동기(7만3691건)대비 16.3% 늘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102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 2492억원, 국민 2324억원, 농협 2272억원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규모 인상으로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년 교복’ 이미지 벗는다

‘핏슬레저룩’으로 2030노리는 아웃도어 업계

아웃도어 업계가 ‘등산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핏슬레저룩(Fit leisure Look)’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핏슬레저룩’은 핏(Fit)과 일상 속 운동을 뜻하는 애슬레저(Athleisure), 패션 스타일을 의미하는 룩(Look)의 합성어로 스타일과 건강미를 강조한 퍼트니스웨어를 일컫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너는 핏이나 수분에 반응해 방감 효과를 제공하는 아이스텍(ICE-T) 소재를 적용한 ‘네시엘 슬리브리스 티셔츠’를 내놨다. 이 제품은 등 전체에 메쉬 원단을 적용해 통기성과 흡수 속건 기능도 강화했다.

네피의 ‘베스티아 티셔츠’에는 핏이 낫을 때 주위 열을 빨아들여 온도를 낮추는 하이퍼쿨링 시스템이 적용됐다. 흡수·속건이



우수한 클랙스 소재도 사용했다. 아이너의 리조 레깅스 스커트’는 엉덩이 라인을 가려주면서도 다리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아리 뒤편에서 발목으로 이어지는 부위에는 메쉬 원단을 사용해 통풍이 잘 되 블랙야크의 ‘E 에르나 레깅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원단을 적용한 여성용 레깅스다. 다리 옆 라인에 블루와 오렌지 색상을 배색해 포인트를 줬다.



LG 시네빔으로 영화관 감동 즐긴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LG전자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CGV 용산아이파크를 상영관에서 ‘LG 시네빔’ 프로젝터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4명 중 3명 “내년 최저임금 감내하기 어렵다”

지역업자와 소상공인 4명 중 3명은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반 이상이 직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지역업자·소상공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43.0%가 ‘매우 어렵다’, 31.7%가 ‘다소 어렵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한 전년 대비 경영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3%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으며, 향후 2.3%에 불과했다.

상반기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답한 75.3%의 응답자 중 월매출액 감소 폭에 대해 20% 미만 감소라는 응답은 55.8%를 차지했고 나머지 44.2%는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부진(61.1%)이 가장 많았고 이어 ▲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장(57.5%)을 꼽았다. 또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도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축소(53.1%)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진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등이었다. ▲사업포기 고려를 응답한 경우도 11.5%나 됐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불구 하고 지역업자·소상공인 중 하루 근무시간이 전년 대비 변동이 있다고 말한 31.0%(93명)의 답변 중 근무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김경만 중소기업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지역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등과 함께 임대료 억제 등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정부정책을 집중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휴가 극성수기, 1박에 120만원?

“비싸도 너무 비싸다”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으로 가족 또는 연인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른바 ‘극성수기’다보니 펜션의 숙박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박에 30만원부터 최고 12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가 A업체에서 판매되는 여수 르그랑블루의 경우 1박에 12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리조트는 포털 사이트에서 1박에 30만원대에 검색되지만 극성수기, 주말, 풀빌라 옵션 등을 넣을 경우 최대 120여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북촌 빌리에 오션뷰

가 포함된 6인 기준 가격이다.

다른 업체에서 판매되는 가평 리버뷰비트 풀빌라는 31일 1박을 하는 데 74만6000원을 받고 있다. 2인 이 이용할 수 있는 풀빌라 구조의 펜션 가격이다. 이 펜션의 9월20일 요금은 1박에 28만3000원이어서 극성수기와 2.5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외에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1박에 30만원대에 판매하는 펜션형 숙박업소는 찾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국내 여행을 가려고 숙박업소를 알아보다가 결국 해외를 나가기로 했다”며 “국내 숙박업소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혀를 내둘렀다.

LOTTO 제 816회차 당첨결과 (2018년 7월 21일 추첨)

12 18 19 29 31 39 + 7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128,107,93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7	42,350,40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64	1,374,74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2,402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75,79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역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